

# 사회적 경제 시스템, 늪에 빠진 한국경제 구원투수로 나서다

광산구 등 전국 35개 자치단체 연합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제3기 회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취임  
저성장·승자독식 자본주의 폐해 극복  
사회적경제, 주류경제 대안 격상 결의

#광주 광산구에는 '클린광산 협동조합'이 있다.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하고 위기에 있던 미화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현재 광산구 일부 지역에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이들은 모든 조합원이 사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임금도 과거 대행업체 소속일 때보다 더 많다. 고용불안 해소, 공공서비스 강화, 사회참여 활발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는 이들은 전국 지자체의 단골 벤치마킹 대상이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가 싹트고 있다. 노동자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자활 등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방치한 영역에 진출해 이익을 내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한다. 강자 독식의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경제' 이야기이다.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3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하고 사회적 경제 양성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자체장, 사회적 경제 전문가, 관련 단체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출범식을 갖고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3기 회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3기 출범식에서 사회적경제를 주류 경제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5대 실천 과제를 결의했다.



클린광산 협동조합 총회



울엄마 반찬가게 협동조합



광산구 협동조합의 집 개소식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사회적 경제를 주류 경제의 대안으로 격상시킬 것을 결의했다. 압축성장이 만든 양극화의 절벽에서 추락하는 시민의 삶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위협받는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경제로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한 5대 실천 과제도 내놨다. 지자체 주요 정책의제로 사회적 경제 추진, 법과 제도 개선,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시민사회와의 협업, 해외 사회적 경제 주체와 연대가 그것이다.

보육, 교육, 돌봄, 식량, 에너지, 주거, 보건, 문화예술 등 공공재를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로 혁신해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3기 체제에서는 회원 지자체 서비스 중 전략 분야를 선정해 공공서비스 공급자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 규모를 키우는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가 행정구역을 넘어 사회적 경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재화를 일정량 이상 구매하는 의무공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진대회도 열어 '스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사회적 경제를 주류 경제로 격상하겠다는 지방정부협의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제3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취임 민형 배 광산구청장

### “사람 위한 경제 개척하겠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난 9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3기 회장에 취임했다. 민구청장은 “질적 도약은 주류 경제의 보완제가 아닌 대안제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는 의미”라며 “사람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 대신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질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을 축하한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생소한 광주시민을 위해 구체적인 역할을 소개해달라.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협의체다.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현재 3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성과는 무엇인가

▲우선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경제 포럼과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가 결성됐다. 사회적 경제의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공공영역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지난해 8월 국회의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이끄는 데 힘을 보탰다. 실천은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자체가 구매하는 사회적기업도 대진 임금이 대폭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일반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안전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주주의 확립이다. 협동조합을 예로 들면 전체 조합원이 동일한 신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힘을 모아 좋은 실적을 내면 임금수준도 높일 수 있다.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정리해고 대신 임금 감소 또는 일자리 나누기 등을 스스로 결정해 극복할 수 있다.

-국가 단위보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마을이 상생하고 이익을 평등하게 주고받는 것으로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을 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체감 속도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좋다.

-3기 지방정부협의회 목표는 무엇인가.

▲3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째,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육, 교육, 돌봄, 에너지, 의료, 주거 등 모든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 둘째, 민관 협치로 사회적 경제 기반을 다져 양질의 일자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확산하겠다. 셋째,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을 확장해 우수 성과를 전국으로 전파하겠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광주체제' 출범 의미

### “5월 광주 공동체 경험 사회적 경제에 좋은 자양분”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80년 5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광주시민이 최후를 맞은 곳에 있습니다.”

3기 회장 취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말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퍼런스 홀은 숙연한 고요로 가득 찼다.

2013년 출범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3기를 맞아 민구청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광주체제'를 시작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주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의지다. 독자정권의 계엄군

에 포위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서로를 돌보며 범죄 한 건 없었던 기억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공동체 정신'을 사회적 경제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80년 5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동체를 구현한 광주의 경험은 사회적 경제 육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정부협의회회장의 판단이다.

대표적인 예가 광산구 더불어락 협동조합과 클린광산 협동조합이다. 더불어락 협동조합은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만든 광주 1호 협동조합이다. 복지관 어르신들은 이 협동조합에서 팔죽과 두부를 팔아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고 있다.

지역의 모범 모델을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로 육성해 전국 각지로 확장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로 확립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광주체제' 출범은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전국에 깔고 두루 마련하고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기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2기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체제였다.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 기반을 전국에 확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이미 도를 넘은 수도권 집중 경계가 부른 폐해를 지역에서 자치·분권 성격의 민 사회적 경제로 극복해 낸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들의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방식은 일반 기업이나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로 추진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다. 지방정부협의회가 회원 지자체의 협업을 강화해 모범 모델을 집중 육성해 전파하는데 주력할 것을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